

‘제18차 여수세계한상대회’ 성료

세계 52개국 경제인 4500여 명 참여

비즈니스 미팅·수출상담·일자리 박람회 등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서 사흘간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52개국 경제인 4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현 여수국제박람회센터)에서 열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한상 비전 콘서트, 청년채용 인턴십, 일자리 박람회가 있었다.

대회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대회를 풍성한 비즈니스 교류와 다양한 볼거리, 많은 관람객

참여가 있었던 내실 있는 대회로 평가했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대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3만 3천여 명에 달하고, 비즈니스 미팅 12,347건을 통해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에 청년 56명이 참가해 40여 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대회 기간 여수시는 국내외 한상인에게 여수의 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선상에서 진행된 한상 CEO 네트워킹을 통해 여수의 아름다움을 뽐냈고 지역 경제인들에게 교류 기회도



제공했다.

한상인 여수국가산단 투여와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여수의 산업 인프라와 투자 여건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행사장 주변에서 펼쳐진 낭만버스킹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고, 자원봉사자 220여 명은 친절 한 손님맞이로 대회 만족도를 높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회 성공 개최에 힘써준 시민과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에 구축한 한상과 지역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2020년 부산에서 열린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광군, 공무원연구모임 연구과제 평가

영광군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영구 부군수 주재로 평가위원과 연구모임 팀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무원연구모임 연구과제 발표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발표평가는 총 40명으로 구성된 8팀의 공무원연구모임에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자체 추진한 연구활동에 대해 연구배경 및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과제 평가는 사전에 진행된 1차 서면평가 60%와 이날 발표평가 40%를 합산하여 ▲최우수 신소작(새로운 소득 특화작목 육성), ▲우수 백년대계(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장려 지방세 세정발전연구회(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과세방안)가 최종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우수팀으로 선정된 연구모임에는 11월 정례회 시 포상금(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과제는 전 직원이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내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발표평가에 참가한 문동주 위원은 “업무에 바쁘는데 시간을 쪼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 공직자의 모습이 아름답다”며 “끊임없이 지역을 살피고 미래를 위한 충실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영구 부군수는 “각종 축제와 태풍 비상 근무 등으로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 연구활동을 위해 애써준 팀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보고된 내용을 잘 검토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도 다시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연 기자

광양시, ‘친환경농업대학 과학영농반’ 수료식 가져

광양시는 지난 23일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관계자, 수료생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친환경농업대학 과학영농반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대학 과학영농반’은 농업인을 과학적 농업지식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해

미래농업의 새로운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운영됐다.

시는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4월 3일~10월 23일까지 총 24회 125시간 교육을 실시해 총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내용은 농업환경과 정책, 트렌드의 변화, 스마트팜의 이해 및 활용사례 등 실습위주로 실시했다.

한편, 광양시 친환경농업대학은 2005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19년 22기까지 1,06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광양시 농업 전반

에 걸쳐 전문농업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경철 광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소득원을 넓히고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우리시 농산물 판매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농업, 농촌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멜론마을 조성 간담회 개최

곡성군 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이하 ‘멜론사업단’)이 멜론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23일 추진위원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멜론사업단은 곡성멜론복합체 협선센터와 멜론마을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곡성멜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2년째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멜론마을의 조기 활성화 등에 핵심사안에 대해 조성 전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멜론마을 조성 관광콘텐츠 개발 영역의 중간결과와 부여 자은길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멜론마을 조성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경기대학교 임서호 교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중앙FD), 순천대학교 송경환 교수(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주)세간 박경아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 “주민, 추진위원회,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만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멜론마을 조성 관광콘텐츠 개발 영역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고흥군, 청년 창업몰 명칭 공모

개성 있는 청년 창업몰 명칭...내달 11일까지 접수



고흥군은 현재 조성중인 청년 창업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창업몰 명칭(네이밍)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흥만의 특색, 고흥 청년 창업몰의 개성, 청년들의 끼와 열정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실시하며, 응모자격

은 명칭 공모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희망자는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고흥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타 기관 유사성 조화와 심사평가로 이루어지며, 창의성, 상징성, 대중성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11월 중 최종 선정 명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 명칭 공모자에게는 최우수(30만원) 1명, 우수(20만원) 2명, 장려(10만원) 3명 등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 청년 창업몰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해 의미 있고, 멋진 이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창업몰은 농동전통시장 부지에 사업비 9억원을 들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올 연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기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 사업 지원’, ‘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